김정관 / 도반건축사사무소(부산)
by Kim Jeong-Gwan

Design Note

용소정(龍沼亭)

Yongsojeong Residence

집일까?

언제부터였을까? 정해진 박스 틀 속에 차곡차곡 우리의 삶을 구겨 넣는데 익숙해져 온 것이.

유행 따라 차를 바꾸듯 일년을 살기도 하고, 십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옮겨 사는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네 삶의 방식.

우리 집, 우리 동네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무슨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우리네 주거가 되어 버렸다.

집이냐?

유목민의 텐트처럼 걷어버리면 떠날 수 있듯이 짐만 들어내면 아무런 미련 없이 옮겨갈 수 있다.

내 아이가 커 온 기억도, 이웃과 나눈 정도 옷에 묻은 먼지 털 듯 툴툴 털어버리면 그만일까?

아무 미련 없이 주소 바꾸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도시인은 슬프다.

집이다.

나를 담고 삶을 담아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집이다. 담으면 그만인 일회용 용기가 아니라 제 맛을 제대로 내어주는 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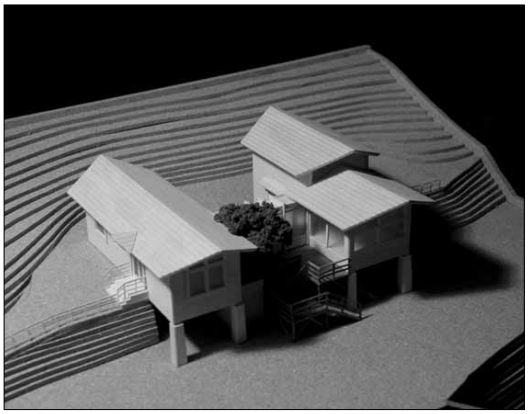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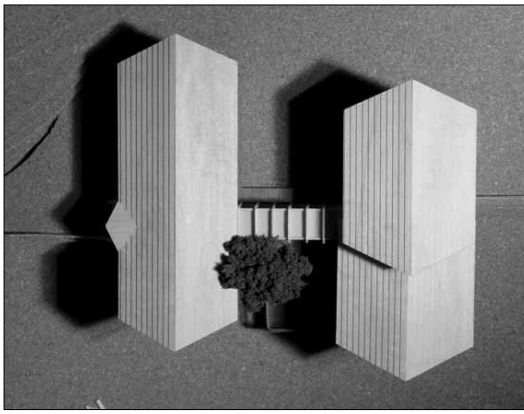
된장국은 뚝배기에, 녹차는 다기에 담겨야

하는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올바르게 담고 싶은 그런 집이 집이다.

내 집 하나 지어주오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때에 돌아가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시는 모교의 공대학장을 지내셨던 교수님을 뵙게 되었다. 평소 교수님과 파트너로 일을 함께 하며 신뢰를 얻고 있던 친구에게, 자네같이 믿을 수 있는 건축사를 추천해 달라는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작업했던 완공된 자료와 실현되지 못했던 자료를 뵈어 드리니 쾌히 의뢰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 중에 완공된 집을 추천해 달라고 하신다. 마침 대지와 가까운 곳에 준공한 지 3년 쯤 되는 '양화당養和堂'이라 이름 붙였던 집이 있어 위치를 가르쳐 드렸다. 현장을 처음 방문했던 날, 그곳을 다녀오신 교수님은 설계자로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 양화당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집 자랑을 하는지 그 집도 마음에 들지만 사

대지현황

는 이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틀림없다고 생각하셨단다.

건축사만큼 건축주가 좋아하는 집이라면 이 집도 그럴 것이라며 작업도 하기 전에 후한 점수를 주신다.

대지에서

기장군은 부산시의 자치구에서 구가 아닌 유일한 군으로서 아직 도시화가 가장 덜 이루어진 전원도시이다. 대지는 산 속에 들어앉은 동네에서도 길이 끝나는 곳에 숨어 있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의 오솔길을 한참 돌아 언덕을 오르니 산에 둘러싸여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안에서도 숲 밖에 볼 수 없는 안락한 터였다.

아무리 타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용소천 상류가 대지 앞을 가로 질러 흐르고 있다. 길은 그 내를 다리로 이어 텃밭을 낀 대지에서 끝이 났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암벽으로 배후를 친 산을 뒤로 하고, 내가 흐르는 남서향으로 열려있는 쪽을 제외하고는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집터라고 보기보다 작은 절이 들어오면 참 좋을 걸 하고 생각을 잠시 해 본다.

대지에 오래된 집이 있어 교수님은 벌써 거처를 옮기고 텃밭에 채소를 심고 가꾸며 이 곳에 살고 계셨다. 앞산에서 땄다며 산딸

기 주스를 내어 주신다.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평생을 학자로, 토목전문가로, 교육행정가로, 행정자문역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교수님은 이제 정년을 기점으로 흙과 가까이하는 삶으로 여생을 살고 싶다고 하신다. 평생의 연구한 결과도 정리하고 찾아오는 후학에게는 가르침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도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이다.

가족은 산으로 들어와 살기를 원치 않으므로 거의 혼자 사는 셈이니 큰 집은 아니더라도 교수님의 현재의 모습이 집으로 표현되었으면 한다는 화두를 주신다. 혼자 살지만 누가 오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 되어야 하고 크지 않은 집이지만 당당한 외관을 가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찾아오는 이에게도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크지 않은 집이지만 집주인의 격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었으면 한다는 것이니 어쩌면 모순 같은 화두를 던져주신다.

집을 생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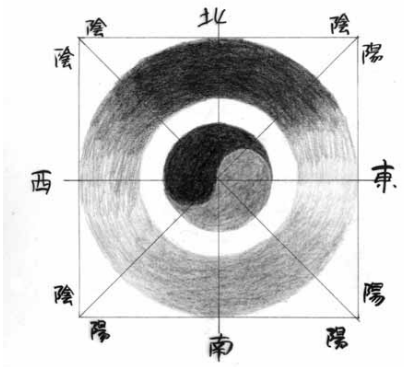
주택은 참 귀한 프로젝트이지만 내게는 작업할 기회가 많았다. 주택만 작업해서는 사무실을 유지하기 어렵겠지만 건축하는 마음을 제대로 유지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옛 집을 가보면 그 집주인을 떠올리게 된다.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반촌(班村) 양동마을에는 50여 채의 기와집이 있다. 집마다 그 집을 조영(造營)한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 위치에 따라 다르게 짓기 보다는 가풍에 따라 달리 지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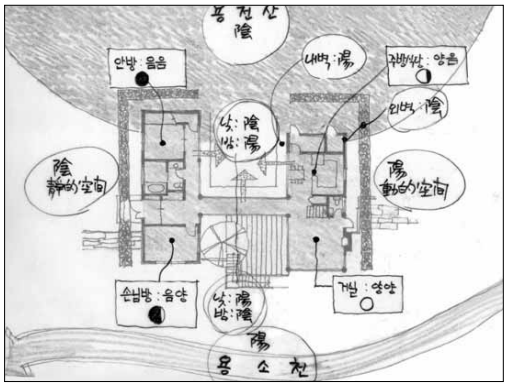
가풍(家風), 이 시대에 다시 되살려야 하는 의미이다.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만들어지고 나면 그 집이 사람을 만들어간다. 집이 만드는 사람 사는 분위기란 무엇인가? 하드웨어가 편리함이나 안락함으로 육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사람 됨됨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가풍에 따라 집을 조영하면 그 집은 가족들의 삶의 행태를 가꾸어 나간다. 그렇기에 제대로 만든 우리의 옛집을 잘 살펴보면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살필 수도 있으며 그 집주인의 성품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주택들이 얼마나 건축주의 삶을 의식하여 설계되었으며 그 집에서 사는



태극을 찾은 공간구성



음양공간 개념도

음과 양의 요소

양(陽)	음(陰)
손님	주인
낮	밤
낮의 외부공간	낮의 내정
밤의 내정	밤의 외부공간
거실재	침실재
전면부	후면부
안으로 향하는 유리벽	밖으로 향하는 벽
산(용천산)	내(용소천)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174 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856㎡
건축면적 129.64㎡
연 면 적 140.24㎡
건 폐 율 15.14 %
용 적 률 16.38 %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설계담당 정민교

이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저자의 죽음을 통해 텍스트가 이루어진다[1]는 얘기는 건축가의 만용을 포기해야 그 집을 위한 텍스트가 완성된다는 말이다. 건축가의 작품에 대한 집착이 사용자를 무시함으로서 보기에만 좋은 하드웨어로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집은 건축가의 작품이기를 바랄까?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의 삶을 잘 담는 제대로 된 그릇이고 싶을까?

집이라는 그릇을 만드는 이인 건축사의 처지와 그 그릇에 담기는 이가 되는 건축주 입장 사이에서 집을 만드는 고민은 시작된다. 사실은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를 고집한다는 것보다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이다. 만드는 이의 입장이 우선된다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쓰는 처지에서 불만족스러움이 있을 것이고 반대되는 결과에서는 볼거리(?)가 적어질 것이다. 어떻든 그 둘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중도(中道)의 묘수를 찾는 것이 모순을 해결하는 솔로몬의 해법이 될 것이다.

대지에서 답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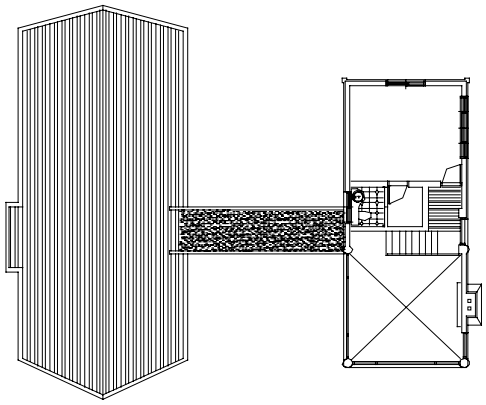
일단 집을 앉힐 자리에서 인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밤이 되면 사방은 암흑천지가 되는 것이다. 200미터만 가면 동네가 있지만 한 쪽으로 들어앉은 대지의 특성상 밤이 되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뒤쪽으로는 산의 바위벽으로 막혀있고 전면 좌우로는 트여진 높은 곳에 오래된 집이 있는 그 자리가 집을 앉힐 자리로 정해진다. 대지 전체는 주변의 산에 의해 닫혀 있지만 집은 높은 곳에 앉아 완전히 노출된다.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처지에서 보면 해가 지면 꼼짝없이 갇히는 상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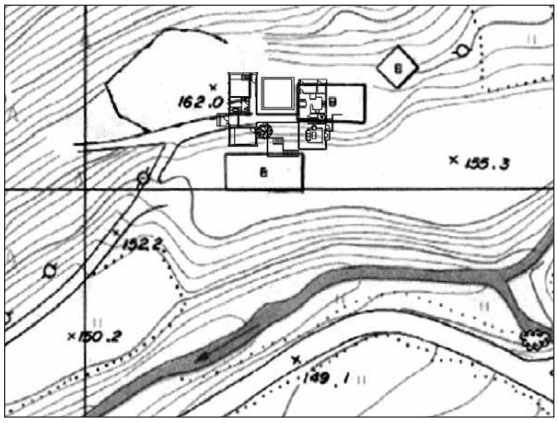
밖으로 조망은 열리지만 닫히는 집, 안으로는 안정이 되지만 열리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키워드가 나온다. 안채는 중정으로만 열려있어 안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사랑채는 벌판을 향해 정자처럼 활짝 열려져있는 양동마을의 관가정에서 해법을 찾았다.

안채의 정(靜)적인 분위기와 사랑채의 동(動)적 분위기를 결합한다. 정적 공간은 항상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거주자를 우선하는 공간이며 동적 공간은 움직임을 받아들여 방문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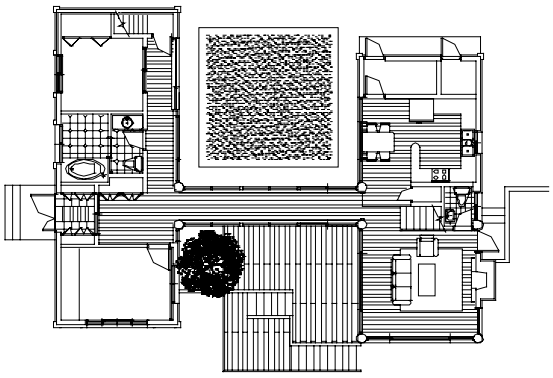
주인과 손님이 서로 어울릴 수 있고, 주인은 일상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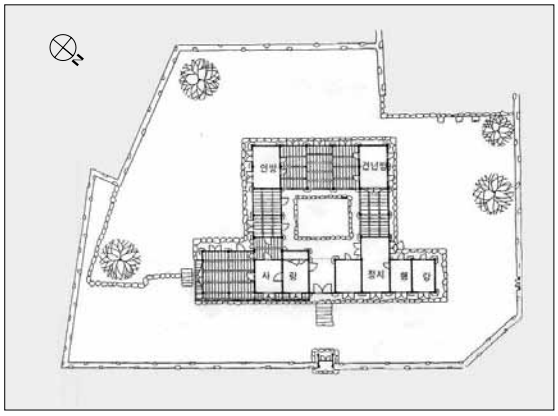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관가정 평면도

님은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정적공간과 동적 공간이 병립할 수 있는 구성으로 일상과 이벤트가 한 집에서 가능해졌다.

혼자 사니 사람이 그립다

아파트는 가족도 객이 된다. 옛집은 안방, 건넌방 등으로 개실의 개념이기보다는 위치를 정하는 이름 정도로 불려졌다. 방마다 공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귀한 손님이 오면 안방을 내어줄 정도였으니 손님에 대한 예우는 어떤 가족 구성원보다 우선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파트는 손님을 위한 배려는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늦은 시간까지 머무르기 어려우니 가족 개인의 손님을 청하기는 어렵다. 친척집을 방문해도 아파트에서는 하루를 묵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온 식구가 같이 앉아 밥을 먹기 위해서는 시간을 잡아야 하고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것도 보기 드문 풍경이 된다. 방이 둘러싸는 거실의 구조는 어쩌면 방이 거실을 쳐다보는 것 같고 거실이 방을 감시하는 것도 같다. 방과 거실은 대립의 구조이다.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집이 되어야 가족 구성원은 주인이 되고 손님이 찾을 수 있다. 혼자 살아 찾는 이가 그리울 것이니 찾아오는 이가 머무르기 편해야 다시 찾을 것이고 많은 이들을 부를 수가 있다. 그리운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집을 만든다.

집을 두 채로 나누었다. 침실을 중심으로 한 정적 기능의 채와 거실 주방을 담는 동적 기능의 채이다. 주인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하는 일상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 손님은 밤을 새워 놀 수도 있는 기능을 수용한다.

음양이 어우러지는 집

낮과 밤, 주인과 손님, 외부와 내부, 배후와 조망 등의 음과 양의 조화가 이 집의 해결 코드이다. 양으로 본 것은 집 밖의 공간, 거실채, 전면부, 안으로 향하는 벽, 손님이고, 음으로 본 것은 내정, 침실채, 후면부, 바깥으로 향하는 벽, 주인이다.

양으로는 닫혀있고 음으로는 열려있다. 양쪽으로는 닫고 음쪽으로는 열면서 중화시킨다. 음과 양이 병립하며 공존하는 공간 구성은 삶에 균형을 맞춰준다. 양인 낮에는 안이 어둡고 음인 밤에는 내정이 밝아지면서 음양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낮에는 눈에 보이는 집의 모습으로 대지에 정착되고 밤에는 어둠 속에서 내정의 조명으로 어둠 속에서 자리를 잡는다.

양의 비중이 높은 집인 아파트는 들뜬 분위기가 가족을 부유(浮遊)하게 한다. 어쩐지 집에 묶어두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도는 원인이 가장 중심 공간을 지나치게 양쪽으로 치우치게 한 것이 아닐까?

실현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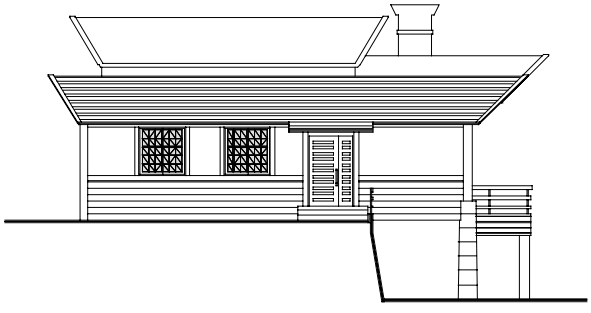
건축허가가 이미 나있는 땅을 매입했지만 도시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허가를 낸 것이 도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허가요건에 맞지 않게 되어 이미 사문서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진입도로의 지목이 도가 아니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땅이 되어 모형을 만드는 것으로 형태를 갖추는 데 만족해야 했다. 교수님은 원래 있던 오래된 집을 고쳐서 살고 있으시다.

나와 같은 집, 나라고 보여주고 싶은 집, 내 삶의 결실과 같은 집을 갖고 싶었던 교수님의 바람을 담기 위해 애썼던 시간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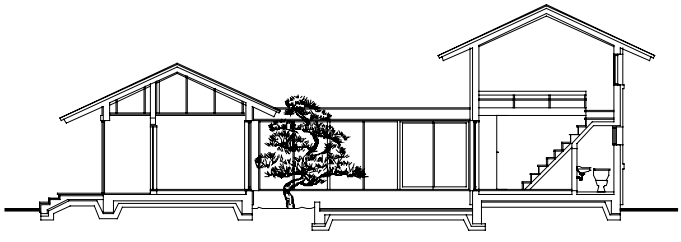
건축의 텍스트는 바깥에 있고 건축의 프로그램 역시 건축가가 아닌 건축가의 바깥에서 온다[2]는 말에 동의하는 것은 집이야 말로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집을 만들어내는 건축가의 창작에 대한 욕구보다 더 절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집의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은 벌써 5년이 흘렀고 이제는 그 분의 연세로 보아 집을 짓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교수님이야말로 괜찮은 집에 사실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분이기에 주인을 찾지 못한 이 작업의 결과가 너무 아쉽다.

注 1), 2) 『건축사이로 넘나들다(서울포럼, 2004)』139쪽 「텍스트와 건축사이(함성호著)」중에서



좌측면도



단면도